

가인글편우종二에국중합
침발日七초월九년二廿국인

호일七초월九년二廿국민현대
일六초월八 廿진경 력을

報週洋平太

KOREAN PACIFIC WEEKLY

SERIES 27 VOL. 11 NO. 402 SEP. 7 1940

931 N. King St., Honolulu, T. H.

Published and Owned by Dongji Ho

Subscription Rates: \$4.00 Per Year; 10 Cents Per Copy

외국인등로기에주의건

본월十일(매체二일)十三일(매체오일) 당일하오
세에한국인등록을신통국어학교에서협조하는데이
니구시든지이상당일간오서서문답을제워가지고
우해국에가서손도장을처시오한국어동번이매일하
오쓰시로여섯시까지외국인등록사무소에서근무할
리이외다
동지회증명부

별세한호상부원(투탁)

거월三十一일호에동지회호상부원증사망인식명
을거저호바금년一월四일리원선.一월十一일김한순
一월十九일에김덕선이상三씨가루탁되였기로첨부
해야거재홍이다구구시든지이상세분의호상금을미
납호셋스면동지회에갖다너시오
동지회호상부

Entered as second-class mail matter, April 29, 1930
at the post office in Honolulu, Hawaii, under
the Act of March 3rd, 1879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太 平 洋 學 院

사 설 우리 사회에 새사로움



하와이 한인사회에 교역자체용이 항상 큰 문제가 되 야 세일문을 놔두지 않고 미주로 청빙해야 우리사회를 보 살펴 달나홀에 대호야 멋가지 주제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인 사회에도 역연호도다 본국파미주로 부터 사역자가 이곳에 와서 하와이 한인 의사명을 봤아 개척호며 종교·문화·경제·방글운이도 헛스며 그 반면에 한인사회에 혼란을 일로 거서 그동조 를 맛어 반동이 있겨 사회조직이 파괴되고 법장강이 물난 혼 애물소호순히들 세천일이 한두 번이 안이 엿섰다 한인시회의 인도자문대로 리히드실을 러산호전된 상반호다는 것보다 오히려 하와이 한인 사회에 손실이 예만 엉내호여도 폐언이 안이로다 우리뿐만만이 타 각

태평양주보

국립사회에서도 의방인제·혹전률자를 청빙해야 세계
현세사상으로 사회발전을 도모호라 우리가 이곳에 우
리세리만 살어 왔으면 우리가 하와이에 처음을 째나조
금도변호이 업셋스러니와 그러치한어서 각국인선전
사회생활에 이목이 높아지고 문건이 넘어서 우리자체
부족정은 절리히 치못호되 타방에서 온 사람의 과실화
사회식활에 이목이 높아지고 문건이 넘어서 우리자체

훈주만역의 샤려니와 타향에 있는 사람의 하와이사회
를 관찰하고 나서는 그들의 객관적 터로 가 엊려호것을
의론호안호도다 인정소처로 태평양고속호선에서 근
四十성상 나그너 생활하는 하와이 한인에게 뜻깊은 통
령이 엿슬것은 사실이려니와 우리사정은 모르고 처음
우리를 상대하는 그의사교상감상이 엿여호는가 그의
감상에는 우리가 미국문화에 반개화호조선 사람이다
정신파사상은 처음부터 죽날색나 조금도 다른이 없서
서 본국행편에 의하면 완고호기가 짜기 이었다 본국에
서는 일위의 성화에 하도 부대거세 벼우고 심히 배운 것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이 아니여 실제 경력에 보고 배와 세전보 되엇스러니와
우리 눈 쳐음을 때에는 사상이고 상하고 청춘방년 시대
라 배우 고신훈 육선이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되야 학
폐종을 가져서 두트 춘종으로 그 날그 날 지니간다
혹자습을 하지마는 지금 익서는 우리 가다 방임하는
세교역자나 혹귀객이 하와이에 오면 우리 한두번
상종히 보고나서는 그 사람에 대호평판을 너무경솔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라하여 선전에 쳐음을 보는 영결노봉
대호며 그의 덕행을 친양호되 만일 그가 험구 눈에 버서
나면 우리나라에서 억지물듯이 아파파 힘당을 밤송호
야 그사팀의 정체의 단체를 판명호기전에 그의 신분에
손히를 세쳐서 그 사람을 결단되니 이는 우리 사회가 아
죽세지도 유치 허서 남의 전설에 전가는 불고하고 누가
말혔다고 덤펴노로 신청하는 폐단일다
령남성경학원 저축연에 대호야 령남부인회 간부중
에사단이 성거져서 그것을 가지고 그자체에 리론이 성것
고또는 경개덕으로 그간부의 회설을 통란한 후였스니 이
는 우리의 강출홍을 경연히 발표하고 그사명을 써고온

사람에게 대호야 부대접하고 물정위호이로다 명남부
인회에 세 그사전조 용히 조처할수잇을것이 어늘 그것
을 가지고 너무설왕설래 하야 당사자에게 면구·불안을
리로 처리할것을 가지고 우리 일을 막하보게 될진대우
리는 그와상종호야 심덕을 잘 알기전에는 한두가지 흥
침풀을 쇠질에 가지고 힘당하는 악습을 사팀 사팀이고
철것이다 쌍은파보지안코 단단한줄 뉘어서 막을수있
스리오사팀은 오래상종히 보아야 한다 본래 악운사팀
이별노업도니 우리 일꾼의 선심을 사서 우리 사회를 말
전케 하도 우리 가 마음쓰지 달엇순즉 우리는 엊명새사
팀을 당호든지 분수에 넘쳐는 흰영도 말고 예보업는 흔
대도 그리 속히 하자 악기를 바라노라

고회와 학교에 대호야

근자에 귀쳐어서 오는 소식 중 반가운 거순 거독교회
목사를 세로 랙인호야 미구에도 차된다 하니 심히 것봄
니다 누가 교회 일을 담임하고 오시던지 교회와 일 밥교
우에 재와 목사자선에게 다루루 복스러운 결파가 있거
를 빌미며 바람니다

서라서 반가운 거순 금조에 한인 거독교회 보가 와서
그제 독만보고도 마음이 스사로 깃불니다 장목사 를 청
하여다가 사무를 맛게 되었다는 소문을 드렸더니 지금
교보를 보니 — 반교우의 만흔성심으로 이리 케 진홍되
는 노거술 멀니 서처하 훔니다

싸라서 거독학원이 티원순씨 부인의 성심 성력으로
모든 일이 잘 진회되며 추계 개학에 진회를 순서를 준비
중이라니 멀니 서향상사 모호며 그려우는 나로서 만흔
위로를 빙으며 찬성 흠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니 고저호는 바는 우리 가여려
년동안을 두고 기덕리던 그시제 가지금 와서 일미간에

천성호교성온아조 웃처낫스니세 미일적제이 언제성
기겠다는 거순 단언키어려우나 천일사상이 다시이나
라에 젠가치 만하질거순 아조불가능임으로 우리가 이
중에서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거시 중국을 도울는 거시
오미국을 위하는 거시 터 한국을 쏘아서 자연히 도울을
밭을 거심으로 이 일에 전부하는 거시 나의 적적 인줄도
암니다 그럼으로 이사람은 귀처에 교회나 학교나 사회
에 대호하는 내가 다시 치임을 질수업는 행편이니 여러
분이 이대로 아시고 하와에 모든 사업상에는 이사팀이
아모판계가업는 것파 이후에 확도 쓰다시 주장될수 업
는 사정을 양회하여 주시기 틈바람니다

내가 그 동안에 여겨서 준비했던 일은 거의 편역과는
중이매 장차효파가 엉덩통거슬보아서 아서 계승더니
와 어려운 재정으로 이때까지 계속하야 후원해 주신여
러동포는 그 후원에 준 효과가 장차 우리 민족 운동에
도움이 될거슬 알게 될날이 있기를 바람니다 이 암호로
도 계속 힘들어서 진회를 거시며 그동안 힘여온 모든 일로 아

호나다

교회와 학교에 대히서 내가 한마디 다시 흥고저호하고 말운이거십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를 서로 세운 거 순우리가 한국인과 연락을 하는단지 우리가 독립 교회라는 명예 만취한 자거시 안이고 우리도 낭파가치 우리 거시 잊셔야 되겠다는 각오로 시작호거십니다. 나이주장해야 세워주는 거 순아모리조하도 우리 거순 안입니다. 날의 호는 사업에 우리돈을 갖다 알만한 너에도 우리거시 되지 못호니다. 물론 우리거시나 낭의거시나 우리 가가서 배보앗스면 그만이지 구벌호거시 무엇이냐. 그것지만은 낭의제가서 부쳐서 배를 보는 거 순얼마 후에 날이도 아주지안으면 업서자고 말지만은 우리거 순조교마케라도 시잔호노교 우리저력을 드려학장호 면생구히우리거스로 크게 만들수 있는법이니 우리도 날들호는 절례를 쌔탁서 우리거술 세워 가지고 우리거술 크게 만들라는 계획으로 시작호거십니다.

학교를 세운거시 이교회에 장래와 민족장래를 희망

하고 세운거신데 크게 만들어서 각국인계에 자랑호만 그중에 제일선용잇고 성우에서 성활호는 줄 분명히 티희호는 사람은 밀라바이·파렐이다. 파렐은 시방들사로 봄베이히만을 너다보는 아름다운가정 생활을 했다. 파렐도 다른 영수를처럼 변호사직임을 너에노고 간다. 를후원호는데 전력호다. 잔되는 오날에 악서 김홍성각을호아니는 일을하고 파렐은 조직호는 척임을마다 인도혁명이 성공되면 파렐이 총리가 아니면 제세대 종령이 되리라는 여론이펴도 라다니다. 혁명당들은 — 중에 혁명회의를 지금열기 원호다 그 현대회가 민중투표로 성립되며 미국 한방파 비슷한정을제정호리라. 인도영수들은 대부분 미국역사를 일교 품폐인이니 제폐손이나 링컨을 근위헌법작을 흠모한다.

동지회는 여러동지가 아시노 바와갓치 민족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향호자는 목적으로 훈거신데 개인샤협화파당적감정에 물너서 목전에 도로 혁정애가 되는련 려가업지 알었느냐 지금시기가 갖가워오는데로 우리 민족적정신이 새로진홍되여 사소호성각을 라파하고 꽁의를 암세울날이 다시올줄잇으니 더욱단결호야 꽁고호조직을 일우기 바랄니다. 리승만

성인의란국

콜리어스 할로선 전·마쇄근씨글

전호련속

서기문

□ 혁명당이 무엇을원하는가

전나는 불베이 성 베를루사로 밀라바 동산에서 화려히 성월호는데 서양의복을 계집호재입고 거들거리는 사 람이다. 전나가 영국인 리옹률도 계속되는 형편에서는 그부옹호가치 그터로 남어잇다. 전나는 영국인을 향후 애·인도인들이 위선자기네 원하는것도 짚모르거나 의 할일호 순서서자지 전횡치못호는데·평론호다

서가 일화 동호수 밟게 업다 시거 가느진 봉건제도가 합 중국화된 인도 일관에서 통령호기 불동승다 우리에 히 결하고 진회하려는 사업이 一七七六年 합중국파다름 이별로 업순숙 미국인의 통정파 도음이 더욱 만기를 바 한다 : 이 모든 면수들을 떠나서 좌의연길노 체드레서 면공산주의자 후로 이와 사하잔두사람에게 및 서서 면 치날가 혔다 사하잔은 로물적으로 이란말을 혔다 : 우 리는 간되와 그 신민적 흥동을 벌로 장호재 네이지안을 본아니라 비폭력이나 사탕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식히 기불동하다 오숙막스 사회론이라야 인도사회를 개조 훌것이다 지금 시거를 손실할 수업순숙 거기 소판된 방 항을 차져서 전진호된다 : 사하잔과 그 옹호자들은 지금 큰어름 림에 림을 세트리려고 안이호는 것같다 그리 나간되가 세상을 써나고 또 무수호 그 숭배자들이 활동 을 아니하는데 조구증이나서 날씩 역사하잔 등 이름들을 이 두령자가 되기 매우 쉬운일이다 신미자나 리상자들 이 진귀하는 협편에는 즉 저활동자들이 험세치못한자 름인가 혔다

간되가로 쇠호다거나 사라져 혼적 조차 업서 전다는 것은 그 반대자들에 실력업는 밀이다

간되는 개인평생사업을 다 맞쳤다 간되는 二十九년 이란세월을 가지고 무식하고 몽매하며 절반주리고 회 막이 업스며 베저고 계급제도 암박을 당해야 셀그에는 삼억五千만민중에게 세자존심과 세단걸력과 세회망 파세리상이 통소슬하게 혔었다 간되는 단축호 시간을 가지고 활동거구를 착실히 만드려냈다

간되는 시계나 철도나 자동차나 활자자체 등을 그

독적방향과 민지전진에 응보할지언정 영국인이 사용

하는 거제만은 미워호다 간되는 七十만촌이나 되는 민

간에서 농민들이 시간나는 대로 무명을 짜서 영국인투

자 광장티의이나 영국경제력을 간접으로 손해식힘이

간되성공에요정이라 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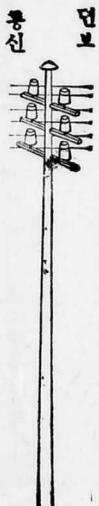
영국인은 인도를 만리호는 그 정체가 운데 혁전이 정

성드못한 계잇슴을 드러나게 인증호다 그러나 인도가

히를려수승으로 드러가면 그 장래가 더욱 악화될 것은

물론이다

래호에



한인계시민에 데힌호령

八월三十一일서 간행문보에 론설호엇스며

한인계에 시민들이 「일본백성」이라 흥에 본개호며 부인 흥은 현언호것이다 영국이 체코슬로伐기 아를 점령 흥파 또는 아라사가 필린드를 점령호듯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호였다 한인들은 계반을 버서 날뛰운 업스나한 인들이 일본통치를 쉬지 안고 반항한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호고 나서 한인을 일인이라 하고

그부노외라 일본사람은 어나곳에 서난문지 일본백성

이타호야 하와이 일인계 시민중에 一중국전문제가 생

졌다 일본운이 주의를 니세워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호이

상에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의 일본법성인세동에 하와

이 출생한인들도 일본법성이하고 혼다 하와이에서 출

세호한인들이 일본정부간성을 부현호이 당연호고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을 일본정부가 간성지안는 것인지 혜롭도다

일본시민주의가 너두도 모호한데 그 주의를 제의함 이가 당호니 이노한인계시민이 인주처 안코 미국정부는 한인계시민을 보호호하여이다 일본이 그것을 가지고 고집호며 「일본백성」문제를 너노면 이는 내년법국가족 제도채용에 일본의 요구가 미약호게 될것이다

수일전에 호황일련사전자는 일포시사를 통호야 말하기를 한인들이 출성을 령사판에 통독지 안엇습으로 그들의 소생은 일본인이 안이라고 말호였다

인본회 기독회

통령던... 일본거독교각교파는 정부령령에 의호야 일본그리스도교 명종하에 망라호야 의국제재 선조를 배제호고 만주·중국내일선교사를 파송호는 동시에 의국인선교사 근절불결의호였다 구미신학에 영향은 업슬자로써 일본의독특선학을 전설호고 일본식포교



물주장호를 이파호였다 (이영향으로 동양에 서영·미개 나다선교사를 축출호자는 제제)

하로에 五차 풍

논문연...一千五百여 명국령공대는 른돈성을거월

三十一일에 丘차나 공습호야 주민들은 공황을에신경

이 쇄약호만호였다 그러나 험공방어대는 계속방호호

야 헤거六十척을 격하호었다 하며 전돌파 일명순히가 낫다호더라

더거경성서는 일명죽히신

버린던... 영국항공대는 턱경주역지방을 습격호야

모든사람은 저녁을일죽이하고 집에드려잇다가 경보

종이울니면 지하설도드려간다

루마니아와 헝거리왕국 본정에대호야 영국관병은

보도호되

「루마니아와 헝거리왕국국경은 양국위선이지경호

二、 할양국경에서 루마니아는 一二주일내로 철병호

三、 할양지방에서는 루마니아국민은 헝거리에국적호

파란민실은비 청

논문연... 영국파란호는 어린이三百二十명 실은비 는 영국우장함명에 침몰되어 그 배주무원 한사람이 죽

매주에 一干식이오 그외에 一만五千원 상여금이잇스

며 그의주일봉전은 최고三千원세자 정호였더라

○ 어린이 송돈을 매작四百원
할리웃던... 잊기·으루기는 미생년액터인데 저판소

에 세 그의용돈은 매주일百원·식활비九百원·저금구원

호는 활동시진 계약을인준호였고 一년제四十주일은

매주에 一干식이오 그외에 一만五千원 상여금이잇스

며 그의주일봉전은 최고三千원세자 정호였더라

해군장관래포

와성훈연... 허군장관의스씨는 五千회를 비행으로

리항호야 五일간리 평양 허군련습과 설비를 시찰후에

九월九일에 호항에도착호야 하와이군도 허군설비를

천히시찰호리라능디라

벌가리아 드를 또요

소피아년... 루마니아는 헝거리에게 추린설비아를

할양호것피갓지 넬사리아국에 쏘부루자령지를 할양

호기로되었는데 벌기리아는 루국의정도를 차지호랴

고 오리동안국제 문제를일로쳤다가 루국의형세가 위

급호을러셔덕·이세력으로 그정도를 도로제령호였더라

남경과 일본간 협약

동경년... 일본과 남경정부간 협약이 성립되야 十월

十일(중국공화정부 독립일)에 반포호다 호였는데 일본

운남경왕정부와 군사주임을 체결호고 중국에의

루마니아 내란

발생

△ 진압지안으먼다점령겟다고

색가라스년... 덕국반편보에 보도되기를 루마니아

가 벼여서 위험통을정지치안으먼 덕국이루마니아 안

전국을다점령겟다호였다

군중은도처에서 정부각원을 실망호는말을호여

려평양주보

九

국은 오디드으로 발령호기를 누구던지 거역하면 사형에 처한다 하였다. 일군사는 중권에는 수千 군사가 파수

하며 그 동일로를 아조하였다. 무장회계원대장은 그 혀부하는 축원설비 아를 총토라도 양보치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하였다. 국경에 뿐마니 아사람은 지호파 노코총·칼·상자창을 가지고 와서 형거리리를 대항했다

는 것이다.

형거리로에는 뿐마니 아할양령지는 사월 25일에

제령호 업더라

영국에 후위협

버린던... 파란서 대구 선전대신 쇼벤운연설호기를

영국의 영국정복시간이 거의 다 달어서 영인의 후을나 노켓라호였다. 그는 선발호기를 영인들은 차전정이 안

이와서 조급히 군대 호지안은 성미금호양반들이 영군의 동작대단은 불편할것이라 하였다. 분히에서 영국구축함[적]척침들을 반포호 업더라.

三百평방리를 뿐마니 아가 형거리에 할양호였다

루마니아는 싸흘한번못히 보고 령도를 아라샤에게 세앗기고 지금와서는 형거리에 계 죠덕·이 풍국에게 업질수업시 할양호였다. 지금루마니아국은 형례안남은데다가 무장회제를 담호였다.

추린실베니아 주민는 정부령령에 비분강개호야 역

이 항거호는 힘동을 쳐호며 사면에 혁명거제가 일어났다. 루마니아 외상 노베누체는 공중에 선포호기를 영국이 이어처럼 불의 힘동을 쳐들출우동상도 못호 업노라호 업더라

제호야 아푸리카의 영·이정재에 영국이 특송호를 것갔다

한국백성들이 법령반혁운동을 개시함은 아니오 앤 후로 三만 九千명 전사·十四만 三千명 중상·한국 4만 남주재영국대장 인도하에 베지정부를 배반함이 마하

더라

○ 영국의 손회를 반포

버린던... 가선처보도에 영국의 륙군 손설은 편정이 힘위불명 다수이 라호며 영국에 거 손설은 一千里이 오 적국 비자는 통히 六千九百五十대마호며 二百二十 일전정에 영국에 三千五百번 광승에 五百만복한을 푸

허호 업노라호며 죠덕 국 푸으로 군홍상선 五百체(二百만톤)을 처롭호 업노서 바나(百五十九체) (二百五十九thon)을

손상호 업다. 허더라(영국선료에 편재 손설통계는 너무 허황호 계반포·거자)

버린던... 영경승설자를 폭습

방정부는 영경팀시 영국정부에 충성장을 선보하고 대역 항전을 개시호다. 아푸리카령지도는 이 할리령지에 군

영국 비거는 적국을 폭격

로드스빌던... 9월 1일에 와성동서 블령호를 폐침
로드스빌던... 항공부발포에 영국 항공대는 9월 1일밤

에데·법·할린·이탈리제국의 장항령근거지와 화약제 창동을 습격호 업다. 그리고 영국비거 二十五척을 격파

하였고 영국은 七천을 잃다. 영국비거가 업지았

게 비행호는 길에서도 그 수효를 세일수 있셨다. 업다

큰비행기 횡액

로드스빌던... 9월 1일에 와성동서 블령호를 폐침
로드스빌던... 영국 항공대는 9월 1일밤

선운자 계고장으로 규잔히 상류라가 계개가 폭발되노 바람에 중격 一十五인화 전부선원이 즉사호 업다. 업다

시해노 五百자이외로 죄나갓다 회사호승 베니소디선 출상의 천년되기도 모할 되었더라

○ 펑제기 고군대 헌산

비에나던... 뿐마니아·형거리당국운역·이양의 상업에서 령로본정 협약을 거절 30일에 체결호 업는데 령래 형거리요구의 반이나되는 추린실베니아 一만 九千

영국보도에 영국비거 九十八척을 써 레드먼드고 영국비 거손히는 三十四척이라 헛여라

동아양에서 구미

세력
배천

상회던 일본육군과 판보 신보는 동양 필립핀까지 포함)에 있는 외국인 동처 철플페를 주장하며 영·미·일·영은 아시아 사람을 영원히 노예로 삼으라는 것이라 헛여다 그 신문을 써 말하기를 일본파 다른 동양제국은 그 계 체 유통 허술 수업 노탁하고 터평양 평화는 비동양인 세 력 베제에 잇노라 헛여다 아사히 홍콩 통신원은 안남 혁명에 대호야 보도호기 를 비지 범국 정부는 영·이 탕국의 양회를 맟아 안남의 질 서를 평통 허수 밋게 업다 헛여다 아사히는 로설 허되 안 남방학이 영경에 잇는 힘시 정부와 배합 허며 이는 일본에도 상관된 다호며 되갈정부는 영국의 조작이라 운동 엇더라

동아일보는 폐지

조선의 미년 독립정신 혈성으로 인증하는 동아일보는 8월 10일에 총독부 소위 통제법에 의거하여 폐판되 었다

동아일보는 8월 11일호 샤설트 마즈막 「폐판사」를 거저 헛여스며 동아일보는 8월 11일호 샤설트 마즈막 「폐판사」를 거저 헛여스며 약 1 무릇 보도 거판으로 써 소문의 사명이 걸코 세로 운두 쓰의 제공에 만 그치지 안코 — 보나가서 범천하는 시대에 능히 업연 훈비 판제 터도와 부동 훈자도 적정장을 전자 흠에 엇슴은 여러 분의 아는 사실일다 — 뜻으로 2~3년간 본 보를 위하야 유형부 형의 온갖 저도와 천 조를 애세지 안은 사회제 반여러 분에게 건강을 신축해 여간 단히 폐판의사를 마치려 헛여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힘시 주주총회를 8월 11일에 개호하고 총독부의 신분지 통제 방침에 응호야 허산하기로 결정 헛여다

동아일보는 창설이래로 조선민족 정신을 제창 헛던 언론기관이어서 총독부는 그 신문을 여러 차정간식 헛다 장남여름에 전서 장송진우씨가 동경에 가서 동아일보에 판양회를 맟아 웃다가 굽기고 노에 독자 정부가 조직 헛후로 세월을 마련 헛야 동아일보를 아조임새 바렛 다 지금 잇는 조선어 신문은 총독부 기관보 매일신문이 오그의에 조선일보인데 그것도 폐업인듯 헛다

미국적 롱라거 으로 명

합중국 해군장관 닉스씨의 부탁 받은 도너버 참령 파마우리 양씨가 특히 구라파 정세를 친히 가서 조사 했 후 히군장관에게 보고 흥바 조간영문 보에 역재 헛다

파란·노·외·이·벨지·엄·할린·룩세·모·비·법국·정국·아라 허울데의 군락상 걸작이다 허울데의 군사 비밀파 속력 이었지 민활호 엿든지 현대 군대 조작은 소용 없이 되었 다 허울데는 스페인·나란에 경력을 어여서 항공파 탱크 를 압정 세워 가지고 꼬만 명군대가 법국을 써 려 헛여다

정보를 전한 후 엑스터 파란 말로 가짜 군사 훈련을 받았던
스며 부선면으로 인민을 공격했다. 파란군 대가 그 주

만에 항전 했었드면 데군은 멀ঙ수업시 오린 세월을 허
비한 엑스터라고 데군장관은 자박 했었다.

그런데 노의이 정복시에는 노의이에 덕인이 있었고
미국 칠약을 노의이에 미리 아리드면 노의이가 그리
속히 군복지한 엑스터이다. 미국 항공군이 항하하야 군
거지를 선행하여 가지고 현황국을 축출 했었는데 미국
항하군이 나려오면서 노의이 항구에 상선처럼 잡임한
여든 배에서 덕인들이 상륙 했어야 항하군과 작전 했었다.
덴막령에 변장 했던들이 민간에 공황을 야기한
야. 혼돈상태를 만드는 노코 향거 흥이 무소용하다는 주
장을 만나 세워서 덴막이 쌈작업시 정벌케 되었다.
할린정부에 12만 미국 주민이 미국 유후 했어야 선전
하며 점탈 했어야 고발하는데 심지어 미국 하인들도 상전
들의 당화 했던 것 깨지 필거 했어야 서 덕군에 고발 했
다가 실제 덕병이 들어선니깐 할린에서 살둔 덕인이 덕
군파합작 했어야 인민을 총살 했었다. 그때에 할린 덕인을

운홍색카드를 제제히나여 뵈여서 미국을 도았다. 태
호에 계속

안남은 일본에 항

상회면... 일본은 1월 1일에 최후통첩을 안남정부
에 보이고 일군상록권을 요구 했으나 안남당국은 거절 했
었다. 비지법국정부는 안남당국에게 일군은 송권을 해
금하고 있는데 일본 요구가 성공회면 일본은 연안을 통과
해야 중경원정에 군사를 운송할 것이다.

통경보도에 류군당국은 안남에 최후 통첩보님 것을
부인 했던 것이다.

○근지자리 쓰에구 축현대상

와성동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구축함 50
척을 영국에 양도 했고 그 대상에 영국은 남북미주 연안
에 있는 예령선에 미국 해군은 거지 99년 리스를 허
락 했었다. 미국은 이 양여 델선에 해군항공 근거지를 신
설 했어서 반구의 외구 칠약을 방어 키 되었다. 미국은 9
19년 리스에 세는 날자 안고 영국과 협동 했어야 군사 설

비를 계획하려 이다 꾸축함 50 척과 여덟성 리스교환
에 대하야 영국은 구축함 중가로 미국 경제봉쇄에 유효
하게 되고 미국은 런제양 방비에 매우 필요한 군사 상요
허정을 정령케 되야 미국이 안전 했다.
액정보도에 히틀러는 영국이 국권을 구축함과 교환
하는 영국의 위험을 표시 했던 것이다. 50 척 구축 함
을 영국이 미처 지출해도 미국은 대소롭게 놔이지 안노
라 했었다.

하와이인구 가증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와성동년 추축에 미국 친군정이 하와이 허군시설
신설되는 허서방방비가 충실히 으로 미국은 대가 터평양
경비에 더욱 유효 유효한 허의 허이하나 허드라
루스벨트 통령의 국방선에 대하야 미국 광론 다수는
찬성 했다. 와성동포 스트는 찬성 했기를 미국 소득 대상
에 구축함 양도는 오히려 같이 싸여 했었고 생투이현문
온 루스벨트 쪽지가 전시 힘풀을 취한 했었다. 허고 비란 했
었다.

루마니아에 혁
부카레스토던... 아이오사라는 정당은 가톨왕회위
명

종지회와 국민회에서 외국인동록 신청서 문답을 후
원한다. 허는 임의보 도호 엇거나와 동지회에서는 의교
천리 청수씨 지도 하에 거월 27일부터 이주 일세자

근 二 三 명의 문답동록을 청조호였다 그 중에 다수는 빌

세 우래국 업폐 터래근 빙의 ○ 二 一 총제을 나가서 손도장

을 쳐서 그 수속을 빙호였다

리원순씨는 설교승기를 엿던 통로는 호항에게 선도
년월일을 구역으로 계산 반포기를 청호였지 만은 한약
그리 반포하면 도리히 산만호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으
로 양력일자로 배일축을 잘 생각해서 찾기를 부탁호였
다 또는 배일축과 년월일을 아조이 제발였으면 것둔내

해 동원호 이를 생각호야 그네들에 게 문의호 타호였다

와 하 이 와 동포 후원

동지회를 대표호 야 한인동록을 주관호는 리원순씨
노반포호 기를 와 하 아 와 구니아 와 일루 아며 그 외에 선
재훈동모의 편의 위호 야 본월十일(주일) 해요 두 시
에 와 하 아 와 죄독교에 배당에서 한국 출성 날내동록의

동록한당을 홀라인고로 당일에 리권을 허대호기를 바

란다 호여라

○ 일인상업회에서 동록한당
하 약 이 군도 예산지회 필립관사람들은 외국인 등록
법에 불평이 성겨서 와 생돈주 저 비도 대표가 너부부와
교설호 야 비도인은 국제상으로 미국령지 시민인고로
동록호이 온당처 안타호고 반대호 엇스며 별무설운이
에 대호저판이 아죽업승으로 생활판결이 올째 까지
다린다

○ 호항 재류일본인들은 상업회의소에 가서 등록호며
손도장까지 그 꽃서벗기로 우래국과 교설호 앙국의
월만호 양회를 어여 꽂착수호는데 일인 단해 70여
가조직호 야 한 사람도 빼지지 안코 한곳에 가서 등록호
며 손도장을 치개 되었다 호여라

○ 모주기스교회는 폐지

밀니 편취불에 있는 모주기스교회는 창설호지 50
년에 교인수호가 하소호으로 9월부러 폐지호고 종교
회교인들은 중앙련합교회에 참가 기로 결정호 엇다 데라

토목 국 장은 객사

화와이지 박제부 토목 국장은 개인치는 가족을 대동
하고 거점에 미주에 한양차로 가서 가주요회비의 공원
에서 9월 1일 아침일찍 다가 심장병으로 별세호 엇다 씨
눈령년이 48세로 민주당의 유력호인들이 머라

외 국 과 현 단체 해산

한국로라리 클럽유각전문·사업가 중 유명호인들 노
조직회에 세계각도성에 지부가 설서되고 사회봉사에
공헌이 많다 일본 조선·한주에 40년 로라리 클럽은
전부 해산호 엇스며 일본구세군은 영국에서 아조분리
호야구제회원중하에 서로 조직호다 데라

양의사 개업

판타마세를 맨에서 랑년간 치의사 무를 보든 치의사
양경찬의사는 남빈아드 158호(큐한병원근방)에
치의사무소를 신설호고 9월 1일부러 개시호 했더라
양 치의사는 양유찬박수령제로 민주센루이스 치과
대학을 빙호후에 2년에 환항호 야 팔라마 세를 맨에서

각 학교는 9월 3일 개학

공사립각학교는 9월 3일부터 개학호 엇는데 금년
추계입학총수는 9만 2千명이 라호며 작년보다 증가
되었다

한인 죄독학원도 동일에 개학호 엇는데 금년 추계에

학성수호가 증가 되었다

거독교소속 신홍국어학교에는 학성수호가 전한듯
호나교사 노전파갓치 서마리아·김영거·랑씨 이요 교사
안정송씨 사업호대에·로목순양이 신임교사도 유년한
을 괴수호다 데라

百 세 된 할머니 등록

호항부데국에 한국 할머니 한분이 가셔서 등록호 엇
는데 그 노매리티너사 일다 담령이 100·세시오 하와
이에 36년간 살았다 허며 외국인등록증에 낸세안
흔이로는 리매리너사 서라더라

설지경정을 만히 어었더라

물산전금회

하와이 물산전람에 회는 애세세공원 큰장막에 세 거월二十八일부터 九월二일까지 개시되었는데 七十여상당의 전람이었고 그외각종우회가 있다 매일 하오시로 밤十시까지 二十五전입장권에 물산을 구 경식하였다더라

집은지어도부

서군정토목국장 현씨의 반포를 지혜 一九三六年 一九四〇년간에 살림집 六千三百八十五호에 二千一百四十四만九千석의 전축허가를 내주어서 매일 평균 집네채식 신축하였나니더라

인사소식

루차보도와 간치 힐로김승률씨 부인 뚜리너사는 지 는주일체 아조호향으로 반이었스며 ○마위파이아 디방에 류호며 우리사교회에 힘만히쓰

논리수입니다는 소만사로 출항하였나더라

대방소식

○부인구제회계임 부내내五동에서 부인구제회 체임동상회를 八월二十五일 오후 시 개회하고 익원을 선선했는데

회장 문매리 부회장 조명상 총부 리귀임 서거 재무 유말순 민싸라 범부 낭경주 학무 임옥진 주필학 사찰

동지회 헝양부주 일제

○연례금 호항 윤용순 4월 중명운 2월 한구래쓰 1월 이상합금 여라 구제원 조애나 대표원 민싸라 제씨라

○연례금 호항 윤용순 4월 중명운 2월 한구래쓰 1월 이상합금 여라

○인구세 이상합금 여라

호항 윤용순 4월 중명운 2월 한구래쓰 1월

○주보대금 와히아의 최성찬 二원 합금 二원

○외교비

고봉조 二원 김영기 五원 합금 七원

○호상금

고·김운선 세창옥 남경식조로 윤용순 김순록 이상 합금 三천六十전 부천총수 五百八十五전

○호항디방

부인구제회후원금
호항 二十七월 五十전
마위파이아 三十원
힐로디방 八천八十九전

히틀러의 위험연설

세련된 ... 동구제대회에서 히틀러서는 영국정부에 대항해 연설하기를 엄두케 되는 영국이 분개되더라 이번전투에는 다른별수가 없다』이며 전쟁개한에 대하

더라

十九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야영국을 조종하고『영인은 전쟁이 三년이나 현장되어 서준비호다호지안은 나는호술여여서 말호노니 지난 九월에 우리대원 허맨코링말대로 전쟁이 五년이나 계속될줄알고 준비호다』하고 영인다려 직상을 벗지 말나 너가(히틀러)온다호였다
히틀러는 악이나서 군중에게 선언하기를 영국이 비 군사지방을 밤마다 공습하는데 영국은 영국을 결단나 게보복공습을 계속할것노라고 이탈리아 합작하여 끗싸지싸우겠다호였다

○루마니아왕은퇴위 부카타스트던... 대국동정파가 정권을 장문후에 가를왕은 퇴위호야 라국으로 망명호였고 마이클왕자가 직위호였다 가를왕은 청년시대에 랑봉으로 헬튼왕후 를소박하고 유리인현인갓밧처 둘루페스크와 연애를 멀져왕위싸자 박탈되었다 애니톤네스크 신총리는 국령으로 소박하여서 외국생활호든 헬튼왕후를 소환호야 마리를왕의 성명을 살았다
카를왕은 루페스크를 엊지사랑호든지 루마니아경 부기그녀자를 귀양을보니면 자가는 퇴위호겠다고싸 치말호였다 가를왕파 애니토니스코총리를 헌법정지 와국회회선을 법령으로 받았어야 독재정부로 변호였다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Korean Christian Institute

2144 HALINA STREET KALIHI UKA
HONOLULU, H. T.

八九三九三一

화사 저작권 893931
판권면화 67-148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IHA St., Honolulu, T. H.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Korean Christian Institute

DR. SYNGMAN RHEE
1766 Hobart Street, N. W.
Washington, D. C.

Cable: Korec

Phone: Hobart 2975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Korean Christian Institute

DR. SYNGMAN RHEE
1766 Hobart Street, N. W.
Washington, D. C.

Cable: Korec

Phone: Hobart 2975

사무소

미국 학교 및 교육부
(한국인 선교사 교육 및 학술 연구
사무소 전국적인 활동)

연화 사무소 111111
화사 저작권 893931
판권면화 67-148

리뷰

○ 외신부의 고부전집



교관 풀이씨 판

본관은 광활한 거처에 편리하고 광대가 천연
한 애완동물 전통을 향수 중앙에 머물고, 상업상에
리호며 농업을 주로 하는 놀고고마사를 잘 주선하고 선속
수용한 애완동물이다. 한동포에서 한 허자자 오시울
풀이씨

한 허자자

김서울

한 허자자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약 품 광고

본인이 본국제약회사와 특약하고 각종약품을 수입하는데 무엇에 먼저 자세히 고려해야 청구할 시면 즉시 수송할 오며 약품에 판매하는 50원이 상한금으로 청구하시면 반가에 드립겠습니다
또 - 통인상이 있습니다 100원한근에 7천50전 이오니 품질은 국산품이외다

회향 푸오와이너리 - 850.0 흐저 고래

C. H. SHON

1850 PUOWAINA DR.
HONOLULU, T. H.

광고

본인이 수년 전에 저부사영으로 총사장이 우마 괴복과
장복도진고 희의군인의 농장과 각자 판학교 선교들이
복장원장을 소하고 - 밤종포에서 해고수선을 바
며 그나마 전호수 남궁구이 71호

판사

임시관 관고

광고 (식 물상점) 고

체인의 철제로 농지방 각종식품과 솔이구비로 오는
다수물과는 대고 헌신을 바탕으로
폐기하 식물상점과 편의점
밀리하거리 111-1호
전방면화 8769-1111
사자전화 881-19111

LILIAH SUPPLY & LIQUOR STORE

1211 Liliha St., Honolulu Tel. 87692-5823

광고

체인상부에 판매하는 부상의 품이나 화장에 대한 것
에 대해서는 전자화로 사업이 이루어지 면화로 면
화제작물의 헌신과 그린 소설이 히고 선숙한국
이 와이 주의 헌신으로 충당부하고 전화 881-1911

판사

광고 뚜레 미리 상점

체인상부에 판매하는 부상의 품이나 화장에 대한 것
에 대해서는 전자화로 사업이 이루어지 면화로 면
화제작물의 헌신과 그린 소설이 히고 선숙한국
이 와이 주의 헌신으로 충당부하고 전화 881-1911

감자 몸살 거부증 허초
부인에 제법약과 청부의 불합 등
정화가지 중세의 저합한로 저가구 비호의
김 팔라마 고리 814호
약국주인 강상호 흑

광고 무문점 바광

화로

본인이 베리란디 아거리 아아하고 너에 서를 전방을
신세계에서 암보드 (각형식물·각색제조·각종화실·식
물로는 암보것이 암보나다 물건을 죄고 화선호것을
취해하고 각은 다른 전방보다 좀 철학계파를 드리다
의심마시고 본성전에 차자와 세 한번 시험해보시오

즉 빙하 농장에 계신동포서 부탁드립니다. 식물의 푸
듯이 뛰어난 원호서 드리로 부탁하시면 꾼수 응호여를 일
하이 오며 또한 농장에서 채소동속에 무엇이 먼저 본
상자에 보니고 부탁하시면 상당한 갑에 팔아서 실수
하시는 험에 대해서는 한 번 시험해보시고
폐차 인정을 매해서 장터사업에 취미를 엿개롭세다
화로 베리란디 아거리 아아하고 333-191호

판사 물상점주인 화로
전화 6-111-1
Y. Y. WHANG

329 BERETANIA Street
Honolulu, T. H.

화로 베리란디 아거리 아아하고 333-191호
판사 물상점주인 화로
전화 6-111-1
Y. Y. WHANG

화로 베리란디 아거리 아아하고 333-191호
판사 물상점주인 화로
전화 6-111-1
Y. Y. WHANG



고

작정과 약종이 구비호오니 소용대로 청구로서

현숙히 승용호으로

신전대보환 제4元 신전대보랑 제4元

승당 - 풍증 1월50전 삼용보의수 1월4원

현상 1월15전 1월1원

1월10전 1월1원

제양환일제 四元 조경환일제 四元 우황전상환일제

1월 이외에도 영란 영선환과 그라 각종약이며 각

종소설파 우라버선대소동이 만이 있사오니 한번시험

해야보시오

설에 저인 생상 1년에 1월50각

속고 이 속곰은 일삼부자대 조강였다 쟁가지로 조합

친고인데 네정죽습즈 모든 채증에 선호잇는 선발령이

오니 이상병증이 있는 부인 입체시 험호야보시오 뉴우

수7고한근에 1월이오 상수7고환 1년에는 육 5원

본인이 약풀과 식물과 소설등속을 발매하는 바

549 N. SCHOOL ST. Honolulu, T. H.

연화 8879
호황 五四九 스콜거리 韩国文

전전제 본국서세로 풀어 우물건이 있으사 오고자리 문을
이방고에 있는 것을 주문하는데 즉서 수용호것습니라
독우 국장품 1당증 10월 4월 4월 1월 2월
안치환(감자약) 1월 50전 ○ 주의암습 1권 75
전 ○ 조선어록(교파서) 1월 1월 50전 ○
○ 조선역사 1권 40전 ○ 1국지 1월 1월 75전
육련동 1월 1월 75전 ○ 충양전 1권 50전
법무부의 암호례미는 약 ○ 고암노례 약 ○ 국상풍비단
풀당조 1권 1월 ○ 사향 ○ 경사 1월 50전
옥편 1권 1월 50전 ○ 춘종시대 1권 1월 50전
수우 산풀 삼용대보환 1제 9월 소합환 1개
10전 이외에 원식물이나 약풀이나 각종 소
설이 구비호오니 만한 하대한동포는 익고 허주성을
간절히 라바나이다

BAI YIL CHIN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喚起百萬同志

대 평양 주보사

매주 토 일 발행

사무소 : 북 칭-스추리 九三一호

우편 : 一五七三 덴화 一八九八四九

우리독립선언서에 공포호한바 공약
三장을 실시할지니 三一정신을발휘

야 비록력인 회생적 행동으로 우리
승리를 이기자

대업을 성취하자

주필 : 김명국

一권 一〇

편집 : 김명국

二권 一〇〇

발행 : 김명국

주소를변경하면 즉시

본사로 둑지호시오

주소 : 북 칭-스추리 九三一호

DONG JI HOI

同 志 會 大 政 綱

DONG JI HOI

□ 一.
조직적 힘 풍이 성공의 요소이니 우
리는 개인 힘 높을 절 바티고 단대
법위안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지휘를

복종하자

▲ 주의호시오 ▷ 중앙회 중앙부 사무소 고집
▲ 거서나 회에 관계호 세류는
중앙부장 손승운씨의 개로
▲ 척을 청구하나 정치하나 친에 관계되는 것과
각항 광전과 주보 대금을 상부 걸자부

김유실씨의 개로 보내시오

Y. S. LEE

發揮三一精神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